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 제안: S대학 사례*

최지현** (고려대학교) · 서승호*** (세한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지역중심대학이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에 효과적인 학업특성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남지역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 재학생 10인(평균연령 55.2세)을 목적 표집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면담 내용은 주제분석을 통해 주요 테마를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성인 친화적인 학업특성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강화요인은 내적 성장동기, 학습의 유용성, 주변인들의 지지와 도움, 상호작용 학습, 학습의 편의성이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약화요인은 현실적 제약, 전통적 수업방식, 학습관리 부재, 제한된 학습기회, 제도적 한계, 비현대적 학습환경이었다. 셋째,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은 알리미(AL-EEMI)로 도출되었다. 대학은 성인학습자(Adult Learners)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제도·환경(Environment)의 유연화, 적극적 학습 참여(Engagement) 촉진, 내적 동기(Motivation) 강화, 실생활에서 실행 가능한(Implementation) 학습설계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지역중심대학의 역할을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중심대학, 성인학습자, 성인 친화형 학업특성모델, 알리미

* 본 연구는 세한대학교의 2026년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연구교수, hrd-ace@korea.ac.kr

*** 교신저자, 세한대학교 스포츠융합복지학부 조교수, shseo@sehan.ac.kr

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인에게 직업생활과 개인생활 영역에서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요구한다. 기존 지식에 대한 폐기,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지금의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을 돕는 평생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의 평생학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장과 자아실현, 사회·국가적 차원에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므로 삶 전반의 질적 수준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성인의 학습 지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활 터전과 밀착된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지역과 대학의 연계와 혁신을 강조하는 현재의 지역중심대학 체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교육부, 2024).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교육체제 및 생애주기 관점에서 학령기 학습자와 성인학습자로 구분된다. Knowles(1970)에 따르면, 성인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학습하며, 실용적인 문제해결과 활용 위주의 학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의 학습동기는 단순하지 않으며, 내적 흥미, 현실적 목표, 자기효능감, 가치지향성 등과 연관된 복합적인 개념이 포함된다(Wlodkowski & Ginsberg, 2017). 뿐만 아니라, 학습방식과 학습환경에서도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학습자와 차이가 있다. 성인은 경험을 통해 학습, 일, 자기개발을 하고, 비판과 성찰을 통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새롭게 학습한다(Mezirow, 2003). 또한, 성인 학습자는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 수반되는 동시다발적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학습상황에 놓이게 된다. 성인학습자가 속한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의 특성은 성인학습자의 생계는 물론, 학습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박선경, 안현용, 2026; 정복임, 2022), 일시적·단기적 학습이 아닌 고등교육 이수와 같이 학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제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 가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지역중심대학이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학습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의 수요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학습모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성인의 학업 지속과 성취를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인학습자의 학업 관련 연구는 주로 개념적·탐색적으로 다뤄졌다. 학업중

단모델 또는 학업통합모델은 이론 중심으로 발전하였고(Beane & Metzner, 1985; Rovai, 2003; Sandler, 2000; Tinto, 1975), 실증연구는 사례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대한 인식(예: 김기동, 조준아, 2025; 소정민, 2025), 대학생활 적응(예: 박혜경, 2021; 안수경 외, 2023), 학습참여 동기(예: 조선희, 유미나, 2025; Bohl et al., 2017), 학업 중단과 방해요인(예: 서국선, 안혜진, 2025; 정복임, 2022; Gilardi & Guglielmetti, 2011)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학습 과정에서 성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 요인은 개인의 생활과 환경적 맥락과 관련이 있어 종합적으로 의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성인학습자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 주목하여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추구해야 할 역할과 지향해야 할 성인의 학업모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업모델은 향후 학습자의 특성, 구체적인 학습맥락과 환경, 학습설계와 운영의 핵심 요소와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업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대학에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와의 면담 결과를 구조화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업특성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학습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중심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강화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약화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인학습자의 특성

가. 성인학습이론

교육학은 그리스어로 아이(pais)와 교육·이끌(agōgē)의 용어에서 유래하여 학령기 학생을 가르치는 페다고지(Pedagogy: paid- + agōgē)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교육학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미숙하고 어린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발달과

성숙의 과정을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학습은 학령기 학습자와 학습동기, 목적, 환경, 내용, 역할 등 학습활동 전반에서 차이를 보이며 폐даго지와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성인교육학은 그리스어로 성인·남성(anēr)과 교육·이끌(agōgē)의 용어에서 유래된 안드라고지(Andragogy: andr- + agōgē)의 개념을 바탕으로 근대 이후 성인학습이론이 발전하였다. 처음 성인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은 자아개념(self-concept), 경험의 역할(role of experience), 학습 준비성(readiness to learn), 학습 지향성(orientation to learning)으로 소개되었으나, 이후 학습동기(motivation to learn)와 알 필요성(need to know)이 추가되었다(Knowles, 1970, 2013). 성인학습의 여섯 가지 기본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사람은 성숙해지면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주도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점검하는 자기통제력을 발휘한다(Merriam, 2018). 둘째, 성인학습자는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원으로 활용된다. 성인학습자의 경험은 참여, 성찰, 변화를 통한 학습에 유용하나, 이전의 경험은 고정관념에 의해 저항으로 발현되기도 한다(김형식, 이희수, 2009). 셋째, 성인학습자는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성인학습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역할 변화를 준비하는 강력한 동기는 학습 준비성과 연결된다(Daland & Hidle, 2016). 넷째, 성인학습자는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선호한다. 성인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습 결과를 추구하며, 실무적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섯째, 성인학습자는 외재적 보상(예: 성적, 상장)보다는 성취감, 직무 향상, 흥미나 자기만족, 자기계발 등 내적 동기에 의해 학습하며, 자기 성장을 추구한다(Knowles, 2013). 여섯째, 성인학습자는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학습자는 ‘이것을 왜 배워야 하지?’라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학습 전 학습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참여도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요약하면, 성인은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스스로 학습 요구를 진단하여 학습활동을 계획 및 실행하는 주도적인 학습자이자 평가자로서 학습에 참여한다(Merriam, 2018). 이러한 특성은 성인기의 학습에서 교육은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조력자가 필요하며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aland & Hidle, 2016). 이와 같은 성인학습이론의 여섯 가지 가정은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에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업 경험을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나. Mezirow의 전환학습모델

전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TLT)은 1978년 미국 성인 여성들의 대학 재입학과 경력 재진입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 이론은 성인의 재입학 또는 재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개인적 전환 경험을 설명한다(Kitchenham, 2008). 전환학습은 성인의 학습방식과 실천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이론 중 하나이며, 비판적 성찰과 비판적 담론을 통한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다. 관점의 전환이란, 인지·심리·사회문화적으로 기존의 신념, 사고방식이나 관점이 어떻게, 왜 제한되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해방적 과정이다(Mezirow, 1991). 성인은 행동을 결정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고, 신념을 평가하고 정당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성, 기술, 역량과 같은 암묵적 지식을 포함한 학습이 이루어진다(Mezirow, 2003). 따라서 전환학습을 성인의 고유한 메타인지적 추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은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의미 단위와 의미 관점에 의해 의미를 구조화한다. 의미 단위는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인식과 해석방식이며 의미 관점은 의미 단위들이 모여 생성된 신념이며 관점이다(김형식, 이희수, 2009). 기존의 미발달된 의미 관점은 지식과 관련된 인식, 언어와 사회적 맥락, 개인의 심리적 왜곡에서 비롯된다. 전환학습 과정은 10단계로 소개되지만, 이를 모두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정보, 객관적 검토, 비판적 성찰, 동등한 참여, 타인과의 토론과 같은 이상적인 학습환경에서 전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Kitchenham, 2008). 이는 성인학습자의 시민성 향상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성숙을 촉진하는 중요한 학습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행된 전환학습에 대한 체계적 문헌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예: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교류를 통한 긍정적인 감정(예: 감사, 즐거움), 새로운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예: 성취감, 자부심)은 전환학습에서 중요하다(Grund et al., 2024).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의미 변화과정에서 경험하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은 사회적 교류, 행동 전환, 가치관의 변화과정에서 경험하게 된다.

전환학습모델은 성인의 재입학 또는 재진입의 학업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환경과 학습설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성인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에 대한 활발한 상호 교류와 토론을 통

해 비판과 성찰, 의미 변화, 행동 전환을 경험하므로, 대학의 학습환경은 자유롭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가이면서 안전한 학습공간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환학습모델은 지역중심대학의 성인 전담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에 재진입한 성인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학업특성모델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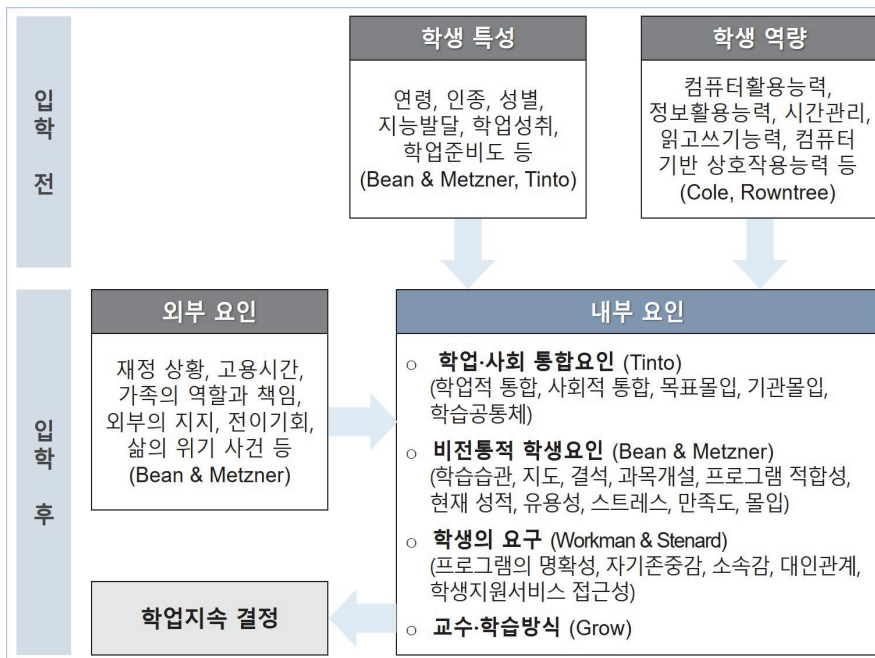
다. 성인학습자의 학업중단 및 학업지속모델

만학도, 직장인 학생, 시간제 학생 등 대학에서 비전통적인 성인학습자의 학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중심대학의 비전통적 학생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영향이 있으며, 성인에게는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적·개인적 성장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크게 높아진 데 있다(Beane & Metzner, 1985). 그러나 대학 내 비전통적 학생의 등록이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 가능성은 전통적인 학생에 비해 훨씬 낮다(Bohl et al., 2017; Gilardi & Guglielmetti, 2011).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성인학습자의 학업 중단과 지속에 관한 학습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학업 참여율, 원격교육 비중, 학업 성취의 실패율이 증가하는 문제(Rovai, 2003)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정책 시행을 위한 것이었다.

먼저, 성인학습자의 학업 중단 관련 연구는 Tinto(1975)의 학업중단통합모델이 대표적이다. 그는 누가(특성), 왜(과정) 학업에서 탈락하는지를 대학의 사회적 체계와 학업적 체계의 두 영역을 통합구조로 설명하였다. 학업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사회적 지위, 거주지역, 학업 경험, 학업 동기와 성취 기대 수준 등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학업특성모델은 이를 반영하여 개발해야 한다(Tinto, 1975). 학업 중단은 단순히 대학의 구조적 문제나 학업 및 사회적 체계의 통합 부족이라는 조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적 참여와 몰입, 기관에 대한 몰입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Beane와 Metzner(1985)는 학생의 중도탈락모형을 낮은 학업 성취, 중도탈락 의도, 배경변인과 비전통적 학생의 특성, 그리고 환경변인으로 설명하였다. 비전통적인 학생들은 대학의 사회적 통합보다 가족, 직장, 재정적 상황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강조한다. 이후, Sandler(2000)는 선행연구들의 모형을 통합 및 보완하여 개인-환경모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직장인, 부모, 배우자 등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역할과 대학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로,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재정적 상황 등 심리적,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한다. 또한, Rovai(2003)는 기존의 모델에 원격대학의 문헌을 추가하여 성인학습자의 원격대학, 가상대학에 적합한 학업지속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11 참고).

지금까지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을 위한 학업중단모델 연구는 개념적, 이론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후 후속 연구들은 Tinto(1975)의 학업중단통합모델과 Bean과 Metzner(1985)의 학업중단모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수정 및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왔다.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모델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다(Rovai, 2003).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학업모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중심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비전통적인 학생의 학업 지속과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학업특성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입학 전 학생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입학 후 학생과 대학의 상호작용, 내·외부 요인을 탐색하여 지역중심대학의 역할과 대학이 지향해야 할 학업 지속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1] 성인의 원격대학 학업지속통합모델

출처: Rovai(2003, p. 9, Fig. 3) 번역 및 편집함

2. 성인학습자의 학업 관련 선행연구

대학의 교육체제가 전통적인 학령기 중심 구조를 넘어 평생학습을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등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업 특성과 경험을 다룬 연구들이 다각도로 축적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은 분석의 초점과 학술적 지향에 따라 크게 학습동기와 학업 적응, 학업 지속의 영향요인, 제도 및 교육과정 맥락에서 학업 경험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습동기와 학업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성인학습자의 학업이 내적 성장욕구와 대학생 전반의 적응 경험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안수경 외(2023)는 학습동기가 교육 만족도를 매개하여 진로요인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였다. 소정민(2025)은 학습성과 인식이 행복감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임을 도출함으로써 학업의 전인적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동기적 요소는 실제 적응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는데, 박혜경(2021)은 근거이론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도전과 참여, 자기관리의 과정을 거쳐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적응 기제를 설명하였다. 미국 사례에서 성인은 가정과 대학생활의 역할 균형, 가족의 희생과 지지가 학업 재진입의 결정요인이었고, 이들은 전문성 개발이나 학위취득 등 분명한 학습동기가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과 세대 차이, 새로운 학업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Bohl et al., 2017). 이들 선행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업 경험이 심리적 동기, 학업 목표, 적응을 위한 전략, 삶의 가치 변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학업 지속의 영향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성인학습자의 학업 수행이 복합적인 제약 조건과 학습자 인식 맥락에서 이루어짐을 규명하였다. 정복임(2022)은 성인학습자가 겪는 학습 장애를 심리·인지적 차원과 다중 역할수행에 따른 환경적 제약, 대학 시스템의 한계로 구조화하였다. 서국선과 안혜진(2025)은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를 겪는 학습자일수록 건강과 시간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유럽 사례에서는 나이, 성별, 고등학교 성적 등 개인의 특성이 학업 지속의 예측요인은 아니었으나, 직장 고용상태, 대학 동기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부재는 학업 중단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Gilardi & Guglielmetti, 2011). 이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인의 사회적, 환경적 요구와 기대가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제도 및 교육과정 맥락에서의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의 구조적 유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이희영(2024)은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와 모듈화 교육과정을 갖춘 개방형 순환 대학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학업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선경과 안현용(2026)은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여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했는데, 이는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나아가 지역 정주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호주 사례에서는 농어촌 중심의 지역대학이 학습자원과 시설 부족, 재정적·문화적·지리적 장벽이 학업 참여를 저해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도서관, 직업훈련센터, 지역커뮤니티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과 협력을 강조하였다(Crawford & McKenzie, 2023). 이처럼 성인학습자의 학업은 대학의 제도적, 구조적, 환경적 조건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성인학습자의 학업 관련 선행연구는 학습동기와 적응, 학업 지속의 조건, 제도 및 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에 따르면, 성인학습자의 학업 경험은 내적 동기, 대학생활 적응, 환경적 제약, 상호작용 경험, 교육과정의 유연성, 학습의 실천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즉, 성인학습자의 학업은 개인적·관계적·제도적 요소들의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지역중심대학인 S대학을 사례로 하여,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학업과 생업을 유지하는 비전통적 학생의 전담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업특성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성인학습자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틀을 정리하였다. 성인학습이론과 전환학습모델, 학업모델, 그리고 성인기의 학업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면담 질문을 개발하였다. 면담 질문은 고찰한 문헌 내용을 참고하여 학업 병행

동기, 학업 상황, 학습 전략, 학습환경, 향후 계획 등 성인학습자의 학업 전, 과정, 이후에 대한 연계된 질문을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셋째, 면담 내용은 주제분석을 실시하여 범주화하고 주요 테마를 도출하여 구조화하였다. 넷째, 성인학습이론과 면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대학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지역중심대학에서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로, 연구 참여자는 전남지역 S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 10인이다(〈표 1〉 참고). 면담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성인 전담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세 개 전공에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1차적으로 자원자 표집(volunteer sampling)을 실시하였고, 학과의 참여 비중과 원활한 연구 진행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선발하였다. 즉, 이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면담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으로, 각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으며, 전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구분	전공	학년	성별	연령	직업
학생1	사회복지복지데이터	1	남	56	운수업 운영
학생2	사회복지복지데이터	2	남	46	건축설계 근로자
학생3	사회복지복지데이터	2	남	44	제조업 근로자
학생4	유아교육	3	여	51	어린이집 원장
학생5	유아교육	3	여	51	어린이집 원장
학생6	유아교육	3	여	50	어린이집 원장
학생7	휴먼서비스	2	남	61	지역 조합장
학생8	휴먼서비스	4	남	68	농업 운영
학생9	휴먼서비스	3	여	71	화장품 영업
학생10	휴먼서비스	4	여	54	보험설계사
			평균	55.2세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5명, 50%)과 여성(5명, 50%)이 균등한 비율이었고, 연령은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55.2세였다. 구체적으로, 40대 2명(20%), 50대 5명(50%), 60대 2명(20%), 70대 1명(10%)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전공의 비중은 사회복지복지데이터학과 3명(30%), 유아교육학과 3명(30%), 휴먼서비스학과 4명(40%)으로 비교적 고루 참여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4명(40%), 2학년 3명(30%), 4학년 2명(20%), 1학년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에 앞서 본 연구는 S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시간적 제약과 선호를 고려하여 원하는 시간대에 약속을 잡고 2일간(2025년 11월 19일~20일) 비대면 전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 미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고, 1인당 평균 40분 정도 면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심리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심층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면담은 S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면담 종료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모바일 쿠폰을 사례로 지급하였다.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반구조화된 7개의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학업 병행 동기)“대학에 진학한 계기와 성인학습자로 학업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업 상황)“성인학습자로 학업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예: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은 무엇입니까?”, (학습 전략)“학업을 잘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습니까?”, (촉진요인)“성인학습자로 학업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방해요인)“성인학습자로 학업을 병행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개선사항)“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로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졸업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와 같이 큰 틀에서 질문을 제시하여 대화의 갈피를 잡고, 구체적인 질문은 상황에 맞게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안한 6단계 절차에 따라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1) 면담 자료는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고 패턴을 발견하여 분류한 뒤 공유한 내용을 (2) 연구자1이 코드를 생성하였다. (3) 이후 연구자1이 초기 코드를 범주화하고 연구자2가 검

토했으며, (4) 코드-범주-진술이 일치되도록 매칭시켰다. (5) 도출된 결과는 연구진이 상의하여 테마를 완성하고, (6)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 결과에 기술하였다. 연구진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평균 20년 이상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편향을 줄이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역할 분담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초기 연구 진행과 자료 분석은 S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자1이 수행하고, S대학의 평생교육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2가 초기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진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긴밀한 협업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강화요인

가. 경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날갯짓

성인학습자들은 모두 주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부모의 역할, 지역 사회의 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다중 역할을 해내며 학업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학습자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경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성장 동기였다. 경력개발은 현재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전문성 향상과 미래를 위한 경력전환 준비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아실현은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성취감,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하는 일 하고는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관심 분야거든요. 학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노후 대비도 하고 좋죠.” (학생1)

“제가 2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학사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석사도 하고 박사까지 할 생각이 있어요. 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위기가. 전문성을 높여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학생5)

“백세시대에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만학도로서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어린 시절에 우등생이었거든요. 형편상 대학을 못 갔지만요, 이왕이면 배운 것을 접목시켜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나이는 들었어도 계속 이렇게 공부가 즐겁다면 대학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학생9)

이처럼 성인학습자는 공통적으로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학업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의 유용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일터나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시점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로 시작되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아, 이런 거는 내가 놓치고 있었네’하고 어린이집 와서 선생님들이랑 공유하면서 이런 교육이나 활동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의견들도 주고 좋은 거 같아요.” (학생5)

“사회복지 경영을 배우니까 내가 노년에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트러블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아·청소년 쪽을 배울 때는 손자 손녀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배우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교양과목도 이번에 응급처치를 배웠는데 너무 좋았어요. 용어도 어렵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학생9)

경력개발, 자아실현, 문제해결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을 동인하는 동기이자 목적이었다. 이것은 전공수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양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 모든 형식의 학습이 포함되었다.

나. 일상생활 속 주변인들의 배려

성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여러 구성원과 함께 살아간다.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학생들과 달리, 성인학습자가 속한 각 조직에서 역할기대와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동료, 이웃과 같은 주변인들의 격려와 지지는 성인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을 지속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애들이 과제 할 때 많이 도와주죠. 내가 컴맹이라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

때는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런 걸 도와주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혼자서는 못해요.” (학생1)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분위기라 감사하고요. 늦게까지 해야될 업무가 있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라’ 하고, 직장 분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힘들 텐데 잘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고맙죠.” (학생3)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을 때 내가 빠지게 되잖아요. 남편이 그럴 때 약간의 짜증이 나고 불편함이 있겠지요. 뭐 타박을 한다든지 하면 나도 학교 다니기가 불편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안 가냐고, 조심히 갔다 오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요.” (학생10)

주변인들의 지지는 심리적 차원의 격려와 응원뿐만 아니라, 원활한 학업 병행을 지원하는 물리적인 도움도 포함되었다. 가족과 동료들은 일정관리, 업무조정, 과제 제출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를 배려하고 지원하였다. 성인학습자의 학업은 학습자 본인의 의지와 동기도 중요하지만, 주변인들과의 긍정적 교류와 지원적 관계도 중요하였다.

다. 대학생활 속 타인과의 포용적 교류

성인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협력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교수의 지도방식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답하였고, 동기들과의 교류도 학업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였다.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에게 대학생활은 새로운 소속감, 새로운 관계를 통해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즐거움이자 학업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수업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수업 외적으로도 배우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분야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니까 좋죠.” (학생2)

“시험이나 모의수업 준비할 때 조원들끼리 만나서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렵기는 하나 재미있어요. 같이 공감대가 있는 학우들이 있으니까 힘들 때는 ‘내가 그만 봐

야 하나' 할 때도 있는데 학우들이 같이 열정적으로 해보자 격려를 하니까 또 하게 되고요. 학생 신분으로 '000과 00학번 같이 밥 먹자' 이라고 모이고, 또 '교수님!'하고 불러보는 것도 교수와 학생의 관계니까 이렇게 불러보잖아요. 나이를 잊어버리고 젊은 시절도 돌아간 것 같아요." (학생4)

"교수님께서 주입을 시켜요.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줘요. 수업에서 뭐라고 할까요. 분임 토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잘 못 했어도 교수님이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할 맛이 나지요." (학생8)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서도 지식 습득 면에서 자신감이 낮은 편이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기들과의 공동 학습은 학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헤치고 학업 지속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과 격려는 성인학습자의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라. 성인의 생활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S대학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생활권과 연결되어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었다. 성인학습자들은 개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선호에 따라 평일 저녁반 또는 주말반으로 전공을 선택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기 중 일부 주차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학습하거나 수강과목 중 한 과목 정도를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학습방식은 성인학습자가 직업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적 조건이었다.

"직장을 다니니까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그런 게 편해요. 교수님이 영상으로 준비해주시는 자료들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는 부분을 기억하려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학생3)

"퇴근 후라서 어려운 수업은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 조율을 잘해주시고, 과목을 잘 짜주시고, 시험과목도 융통성 있게 맞춰서 잘해주시는 거 같고." (학생6)

“교수님들의 마음 씬씀이가 도움이 되고, 맞춤형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자존감, 자아실현, 성취감, 이런 게 까마득했었는데, 알아감에 대한 자아실현, 성취감 이런 걸 느껴요.” (학생10)

성인학습자들은 학업을 잘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또는 담당 교수가 다양한 역할 병행과 시간적 제약을 겪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학습 일정과 난이도를 고려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그밖에 수업에서 과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거나,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학습환경이 학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조건적 학습환경은 성인학습자가 단순히 학습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취감이나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도록 해주었다.

2.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약화요인

가. 물리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 봉착

성인학습자는 직장에서 퇴근 후 저녁 수업 또는 매주 토요일 수업에 참여하여 학업을 이어가므로 체력적 한계를 경험하였다. 학습 시간의 부족과 신체적, 인지적 노화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학업 지속의 약화요인이었다. 성인학습자가 늦은 나이에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열의나 마음가짐과는 달리,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피로감 누적, 시스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수반하였다.

“학업에 따로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2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가끔 서먹한 경우도 있는데 같이 챙겨가면서 배려해주고 그런 게 재미있어요. 저는 학습에 어려움은 없는데 주변에 고령이신 어르신분들은 제가 도와드려도 PC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수업을 어려워하시거든요.” (학생3)

“퇴근 후라서 어려운 수업은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해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일 끝나고 공부하잖아요.” (학생6)

“나이 먹고 공부하니까 두뇌가 안 돌아가니까, 고개만 돌리면 잊어먹는데, 그래서 메모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면 눈도 아프고 집에서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30분씩 일찍 와서 짹 씹습니다. 수업 끝나면, 서로 물어봐요. ‘00씨, 이거 뭔가 이해했어?’ ‘이게 뭐래?’ 그러면, 다들 ‘몰라’ 그래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메모 짹 씹 해놓은 거 알려주고 그러는데 보람되지요.” (학생8)

이처럼 시간적 제약과 인지적 노화에서 오는 어려움은 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성인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학업 동기나 학습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인학습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메모하거나 서로 협력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학업의 방해요인을 극복해내고 있었다. 교수자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인학습자가 의도한 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소통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나. 성인의 특성이 미반영된 전통적 방식

성인학습자들은 늦깎이 대학생으로 학업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 측면이 있었으나, 강의식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의식 수업에서 지식 습득 위주의 이론 수업은 진행 속도나 난이도 측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수업내용의 난이도 조정과 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시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계속 달려가면서 듣는 수업은 많은데 학생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은 범위에서 시험을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중략) 주말에 하루 종일 달려가는 수업이잖아요. 중간에 잠깐 산책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온다든지, 원에서 있는 간식타임처럼 다른 수업도 잠깐 배우고 와서 집중하는 이런 걸 간혹 넣어서 해주시면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학생4)

“일 끝나고 가니까 졸리고 힘들고, 수업이 분위기가 딱딱하고 하니까 토의식으로 하면 쓰겠다. 70, 80 먹은 노인인데 융통성 있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들으면 알똥말똥 한단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은 수업 끝나고 ‘아따 짜증나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학생8)

“성인학습자들을 어렵게 몰아세워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하면은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 적당하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9)

일부 성인학습자는 바쁜 생활과 신체적 노화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습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대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생상에 대한 기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성인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학습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에 대한 알림이나 안내 형태로 학습관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작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 내가 잘 못챙겼어요. 나이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자꾸 깜빡 깜빡 한단 말입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쳐야 한다. 이번에 빠지면 졸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갔을 것 아닙니까. 교수님이 성적을 아주 바닥을 주더라고. 다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학생8)

대부분의 성인학습자들은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이나 참여식 실습이 포함되는 수업방식을 선호하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절한 배치를 요구하였다. 그밖에 중요한 시험, 수업, 행사 등을 상기시키는 알림 제공, 학습상태를 점검하는 학습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개개인의 요구수준과 선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절충할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한 수업 운영과 관리방식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다. 학습 선택권의 제한과 동기 저하

다수의 성인학습자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으며, 다양한 학습 분야에 대한 도전 의식도 강했다. 현재 성인학습자가 직면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전공과 교양수업을 폭넓게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을 해소할 수 없는 제한된 학습 기회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AI나 Chat GPT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교양 쪽으로 이런 교육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현장에서도 점점 AI 사용이 많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학생6)

“지금 AI다 해서 뭐가 많잖아요. AI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AI의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과목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나이가 먹어도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뻘인데 저런 걸 왜 잘할 수 있지?’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7)

“배움을 확장하는데 제도적으로 제한이 많아요. 학과 선택할 때도 성인학습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경영, 심리, 상담 이런데 관심이 있는데 들어와서도 부전공 같은 걸 해주는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어교사, 늘봄강사 이런 것도 우리는 신청 못하고, 졸업 후에라도 수강이나 자격증 정보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학생10)

일부 성인학습자들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이수 과정에서 선택의 제한, 부전공 제도의 참여 제한, 교양수업이나 타 자격증 과정에서 신청 자격 제한 등을 경험하면서 학업 생활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려는 의욕이 떨어졌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성인학습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학령기 학생들과 비교하여 성인학습자가 차별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성인학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대학 측의 배려, 또는 성인학습자반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행정 차원의 의도된 운영 방식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선택권과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동하였다.

라. 사회인으로서 역할충돌과 경제적 부담감

성인학습자들이 학업 지속을 고민하는 요인은 경제적 부담감과 역할충돌에서 오는 관계적 어려움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모두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상황이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학 4년간의 학비에 대한 가계 부담은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또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으며, 교육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자녀의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본인의 학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었다. 자녀가 이미 장성한 가정이라도 본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이전보다 적어진 수입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학비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었다.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학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의 확대를 바라고 있었다.

“형편상 대학을 못갔는데, 학교가 목포 시내에 있어서 멀지 않고, 교수님도 좋고, 지금 장학금 혜택도 있고, 좋거든요. 장학금 혜택을 4년 동안 계속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일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는데 시험 부담이 많이 돼요. 성적이 좋아야 장학금도 받으니까. 장학금 좀 많이 주면 좋겠어요.” (학생1)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배운다는 게 어려운 결정인데,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돈 부담까지 줘버리면 좀 그렇죠. 장학금 제도도 최대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래요.” (학생7)

또한, 매주 토요일 수업으로 운영하는 주말반의 성인학습자들은 주말에 진행되는 직장이나 가족 관련 모임, 행사, 경조사 등에 4년간 참석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학업 지속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대인관계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매주 사과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생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몇 회 정도는 출석 처리에 대한 유연한 대체안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 나가다 보니까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1년에 2~3회 정도는 어떤 강의를 하나 더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혼 시즌이잖아요. 지난주도 못 가고, 이번 주도 못 가고, 다음 주도 있는데 또 못 가고, 매주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안 가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학생5)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저녁에 회식할 때가 있잖아요. 자리를 좋아해서 참석한다기 보다는 팀이 잘하자고 모이고 동료들과 관계도 유지하고 하는 건데, 학교 다니고부터는 회식을 계속 못 갔어요. 제가 학교 가는 걸 아니까 이해는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사회 생활하는 데 손해가 왜 없겠어요.” (학생9)

그 외에도 성인학습자반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실습 기간이 필수로 요구되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4주 연속 실습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이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학습자에게는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하였다. 성인의 직장생활을 고려할 때, 실습 인정 기준을 실습 기간 중심이 아닌 총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지금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다 직장인분들이거든요. 내년 실습을 4주 나가야 되는데 5월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린이집 특성상 2월에 그만뒀야 하거든요. 3월부터 시작하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되는데 실업 급여도 못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 쪽은 저녁에 실습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9시부터 4~5시까지니까 우리는 낮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연달아 4주를 빠지게 해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이 돼요.” (학생5)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입학에 환영하면서도 성인학습자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제도 대신 기존의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대한 어려움은 이처럼 제도적 측면에서도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제도, 실습시간 인정 제도, 출석 처리 규정 등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마. 학습몰입을 저해하는 낙후된 환경

성인학습자의 전공 중 사회복지빅데이터학과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 수업이 있어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실습을 어려워하는 성인학습자가 일부 포함되었다. 데이터 처리나 기술적 내용을 학습하는 어려움은 성인학습자 간 협력 학습을 통해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노트북 지참이 어렵거나 구비할 여유가 없는 학습자를 위해 컴퓨터 시설이 갖춰진 강의실에서 진행하거나, 노트북을 대여해주는 등 학습을 위한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밖에 수업 공간, 휴게공간, 낙후된 건물의 관리 개선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니까 노트북으로 수업하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노트북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걸 학교에서 좀 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전자책 판도 없고, 이런 기자재 같은 게 낡아서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생2)

“시설이나 이런 게 정규반 학생들에 비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갈수록 성인학습자반이 늘고 할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건물 자체도 오래됐고, 밖에 나가서 학교 서비스를 최대한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학생7)

“다른 건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등록금을 같이 내는 다 같은 학생인데 행사나 시설 같은 거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휴게공간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학생10)

대학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진보적인 데 비해 학습공간과 시설은 낙후된 학습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업 기자재 교체, 시설점검, 환경 재정비가 학습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학습환경의 노후화는 학습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성인학습자의 몰입과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학업 특성을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강화요인 및 약화요인

테마	범주	내용	빈도	학업 특성
강 화 요 인	경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날갯짓	내적 성장동기	- 경력전환을 통한 미래 대비 5	학습동기
			- 현재 직무의 전문성 향상 3	
			- 배움, 봉사의 즐거움, 꿈 실현 4	
	학습의 유용성	- 일, 실생활 관련 문제해결, 활용성 4	4	학습내용
	일상생활 속 주변인들의 배려	주변인의 지지	- 가족과 동료의 응원 10	학습환경
		주변인의 조력	- 과제수행에 대한 지원 2	
			- 학교 일정을 고려한 업무조정 2	
	대학생활 속 타인과의 포용적 교류	상호작용 학습	- 협력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6	교수학습법 학습환경
			- 교수와의 상호작용 4	
			- 대학생활의 즐거움 3	
	성인의 생활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학습의 편의성	- 평일 저녁/주말/비대면 수업 5	학습환경
			- 과제/난이도/시험 맞춤 5	교수학습법 학습내용
약 화 요 인	물리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 봉착	현실적 제약	- 학습 시간의 물리적 제한 5	학습환경
			- 학습자의 인지적 노화 5	
	성인의 특성이 미반영된 전통적 방식	전통적 수업방식	- 강의식 수업의 피로감 3	교수학습법
			- 학습 난이도 조정 필요 4	학습내용
		학습관리 부재	- 주요 일정 알림, 학습점검 도움 필요 2	학습환경
			- 실생활 맞춤형 학습내용 필요 6	학습내용
	학습 선택권의 제한과 동기 저하	제한된 학습 기회	- 전공/부전공 선택 제한 4	학습동기 학습환경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충돌과 경제적 부담감	제도적 한계	- 장학금 제도 확대 4	학습환경
			- 출석 제도의 유연성 3	
			- 직장인의 실습 연계 자격증 1	
	학습몰입을 저해하는 낙후된 환경	비현대적 학습환경	- 환경정비가 필요한 학교 환경 4	학습환경
			- 기자재 등 지원 필요 2	

빈도(복수 응답 포함)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을 강화하는 요인과 약화하는 요인들은 인과적, 순차적 관계에 있다 기보다는 동시 조건적 관계에 해당하였다. 또한, 일부 강화요인과 약화요인은 상응하는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어, 포용적 교류에서 상호작용 학습은 강화요인으로, 전통적 수업방식은 약화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의 편의성은 강화요인으로,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한계는 약화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Rovai(2003)의 통합모형에서 학업·사회통합요인, 학생의 요구 중 대인관계, 교수·학습방식의 선호와 관련되었다.

3.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대한 면담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의 학업특성 요인들은 학습환경, 교수학습법, 학습동기, 학습내용 측면에서 나타났다. 성인 친화형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중심대학은 제도·환경의 유연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내적 동기 강화, 실행 기반의 유용한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들은 효과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습환경 측면에서 성인 친화형으로 제도·환경(Environment)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과정은 성인학습자의 배움을 위한 도전을 지원하고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성인학습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 선택의 범위, 부전공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그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학습자는 가정, 직업 등 외부요인에 의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므로(Beane & Metzner, 1985; Rovai, 2003; Sandler, 2000), 직업 활동과 학업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성인의 생활과 상황에 맞춘 실습 규정, 출결 제도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학습자의 물리적 한계를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AI 기술을 적용하여 과제, 시험, 행사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알림, 학습 과정 및 성적 분석, 학습 상담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설계와 학습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법 측면에서 성인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의 학업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 공유, 토론, 협력, 비판과 성찰, 의미 재해석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Mezirow, 2003; Kitchenham, 2008; Merria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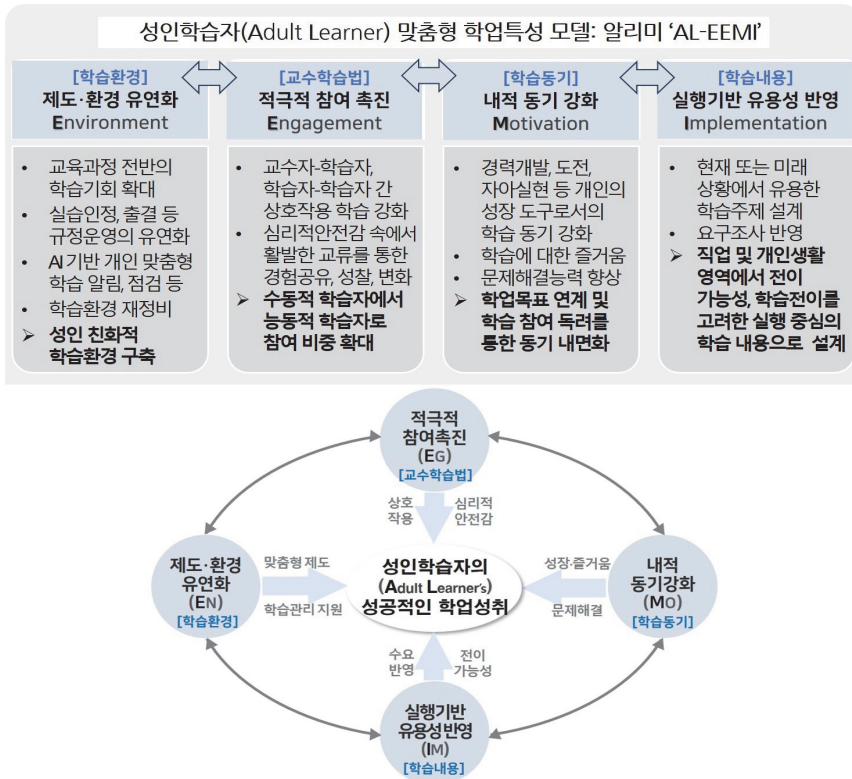
이는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가는 안전한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진다 (Daland & Hidle, 2016; Grund et al., 2024). 성인학습자의 풍부한 경험은 성인의 학습에서 가치 있는 학습자원으로 활용되며,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론, 실습, 퀴즈, 코칭 등의 학습방식은 성인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전통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 주체로서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는 학업 과정에서 전환학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학습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협력 학습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학습동기 측면에서 성인학습자의 내적 동기(Motivation)가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인학습자는 분명한 동기와 학습에 대한 준비성이 있다(Daland & Hidle, 2016; Knowles, 2013; Merriam, 2018). 따라서 성인에게 학습은 경력개발, 도전, 자기실현의 도구이자,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준비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업 병행은 단순 학력 취득 목적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내적 성장동기였다. 이러한 경력유지, 경력전환, 자아실현과 성장은 생애주기와 생애공간의 관점과도 연계된다. 성인학습자의 학업 과정은 학령기 학습자에 비해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이러한 내적 성장동기가 강화되도록 학습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인의 지지와 도움, 긍정적인 피드백이 강화요인이었으므로, 대학의 이해관계자는 성인학습자의 학업 독려와 지원적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학습내용 측면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은 실생활에서 실행 가능한(Implementation) 유용성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성인학습자들은 학습한 내용을 직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서 즉각적으로 또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여 적용 및 활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성인학습자들은 생성형 AI, 응급처치와 같이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성인학습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내용의 학습을 추구하며(Knowles, 2013; Merriam, 2018),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학습한다(Mezirow, 2003). 따라서 학습내용은 학습 전이 또는 전이 가능한 주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대학은 교육과정 외에도 교양강좌나 특강, 행사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 요구조사를 통해 이러한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전공과 교양수업의 상호보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중심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 특성은 성인학습이론, 전환학습의 관점과 대체로 일치하였고, 학업모델의 외부 환경요인을 일부 포함하였다. 지역중심대학인 S대학

은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지·산·학 연계와 지역민의 유입이 강점인 반면, 시설 및 환경 측면에서는 지역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설계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성인학습자 10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환경, 교수학습법, 학습동기 및 학습내용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학업 병행 동기, 학업 상황, 학습 전략,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개선 사항과 향후 계획을 묻는 7개의 질문을 개발하여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을 도출했으며,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강화요인은 내적 성장동기, 학습의 유용성, 주변인의 지지와 조력, 상호작용 학습, 학습의 편의성이었다. 특히 내적 성장동기와 학습의 유용성은 Knowles(1970)가 제시한 성인학습자의 특성 중 학습 준비성, 학습 지향성, 학습동기, 알 필요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 학습은 타인과 교류, 토론, 협력 이 가능한 이상적인 학습환경에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성인의 전환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Grund et al., 2024; Kitchenham, 2008; Mezirow, 2003). Tinto(1975)는 학업중단통합 모델에서 성인학습자는 본인과 가족의 특성과 관계, 대학 이전의 학업 경험과 미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 학업 성취 경험과 학습 분위기, 대학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과 소속감, 대학의 지원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 결과는 기존의 이론과 학습모델의 실증 사례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공동성찰(김기동, 조준아, 2025)이 학습에 효과적이며, 교수의 돌봄과 가족의 지원이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인(박혜경, 2021)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약화요인은 현실적 제약, 전통적 수업방식, 학습관리 부재, 제한된 학습 기회, 제도적 한계, 비현대적 학습환경이었다. 특히 현실적 제약에서 언급된 다중 역할에 대한 시간 부족, 신체적 노화에 따른 학습효과 저하 등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서국선, 안혜진, 2025; 안수경 외, 2023; 정복임, 202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통적 수업방식과 학습관리의 부재는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학과의 교육방법 개선과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안현용, 2021)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 외 낮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정규대학생들과 달리 성인학습자는 제도 및 시설 이용의 제한, 열악한 학습환경을 경험한다는 점이 지역대학 맥락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홍성희, 2025). 학업 지속의 약화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는 각기 다른 선행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요인을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an과 Metzner(1985)는 중도탈락모델에서 비전통적 학생의 경우, 가족, 직장, 재정적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현실

적 제약과 제도적 한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학업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새로이 밝혀졌다.

셋째, 성인학습자(Adult Learners)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은 학습환경 측면에서 제도·환경(Environment)의 유연화, 교수학습법 측면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Engagement) 촉진, 학습동기 측면에서 내적 동기(Motivation) 강화, 학습내용 측면에서 실생활에서 실행 가능한(Implementation) 유용한 학습을 포함하는 알리미(AL-EEMI)로 도출되었다.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서국선, 안혜진, 2025; 안수경 외, 2023; 안현용, 2021; 정복임, 2022)는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을 성인학습자 전담반에 그대로 옮겨놓은 현실을 지적하며 성인 친화적인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알리미는 성인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업 지속과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학습환경, 교수학습법, 학습동기, 학습내용의 핵심 요소들의 동시 조건적 전제를 강조하는 학습모델이다. 이는 Rovai(2003)가 제시한 성인의 원격대학 학업지속 통합모델이 성인학습자의 관점에서 내·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차별화된다. 알리미는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능과 역할, 환경조성 등 대학의 내·외부 요인의 개선과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Rovai(2003)는 기존의 학업중단통합모델과 중도탈락모델, 원격대학 맥락의 여러 선행연구의 학습모델을 종합하여 제시하면서 기존의 학업 중단 요인을 학업 지속 요인으로 동일하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 지속의 강화요인과 약화요인은 일부 동일한 요인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업 중단 요인이 곧 학업 지속 요인과 반드시 대칭적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지역중심대학의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알리미 모델은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민의 학력 보완, 직업능력 향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인생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 지역중심대학은 성인 친화적 학업특성 모델을 기반으로 성인학습자 전형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민의 평생학습에 기여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RISE)’과 관련하여 알리미 모델의 적용은 유용하다. 대학은 지역민의 생계와 생활의 균형적 삶

을 지원하는 직업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성인의 평생학습 중 직무능력 향상 교육영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 본 연구의 사례인 S대학은 지역민의 고령화 및 은퇴 후 직업생활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 종사자가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전문성 강화,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 정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알리미 모델의 적용은 성인의 디지털 역량과 AI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인의 평생교육 불참 이유는 다중 역할과 시간적 제약인데(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 이는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 주된 약화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온라인 과정 확대는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복습,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인 동시에 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은 AI 활용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우려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았다. 교육부는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추진, K-MOOC 선도대학 선정 등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대학의 온라인 학습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5).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알리미 모델을 준거로 성인의 생활 특성과 유용한 학습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온라인 강좌 비중 확대, AI 기반의 학습점검 및 학습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점 및 제언

성인학습자의 학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성인 친화적인 학습환경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지역중심대학이 지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업특성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다

양한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혁신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지역중심대학인 전남지역의 S대학의 재학생들로, 연구 결과에 해당 지역이나 전공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라도 지역 산업 및 문화적 측면, 전공 성격, 대학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다양한 전공과 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1차적으로 자원자 표집과 2차적으로 학과 교수진의 추천을 통한 목적 표집으로 선정되어 학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학습자 위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학업 중단 위험군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악화요인은 본 연구에서 과소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이 점을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진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기 어렵다. 면담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진 간 상호 검토 과정을 거쳤으나,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에 연구진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보다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OR2021-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 2024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2024.11). 2024년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부 (2025.02).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기본계획.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김기동, 조준아 (2025). 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인식 유형화. 주관성 연구, 71, 5-23.
- 김형식, 이희수 (2009). 성인학습이론에서의 경험의 본질에 관한 연구: Fenwick의 관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5(3), 1-21.
- 박선경, 안현용 (2026).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지역사회 참여 및 정주 인식 탐색: O 대학교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참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22(1), 172-198.
- 박혜경 (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화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Oughtopia, 36(2), 99-140.
- 서국선, 안혜진 (2025). 비전통적 성인 학습자의 학업중단 및 지속 결정요인: 대학 평생교육 전략을 위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교육연구, 92, 397-419.
- 소정민 (2025). 성인 학습자(대학생)의 학습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특성 유형, 동기, 저해 요인 및 성과 인식의 역할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8), 791-804.
- 안수경, 김상돈, 차재빈 (2023). 성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교육 만족도와 진로 요인에 미치는 영향-K-대학교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3(2), 57-77.
- 안현용 (2021). 성인학습자 특성이 대학 평생교육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7(1), 141-174.
- 이희영 (2024).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모델 연구: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부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교양교육연구, 9(1), 95-116.
- 정복임 (2022).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이수여부에 있어서 학습장애 요소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2), 935-948.
- 조선희, 유미나 (2025).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와 학업 지속 동기 탐색 연구. 사회과학리뷰, 1-21.
- 홍성희 (2025). LiFE 사업 참여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비수도권 H 대학 학업경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9(1), 79-100.
- Bean, J. P., & Metzner, B. S. (1985). A conceptual model of non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 attri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4), 485-540.

- Bohl, A. J., Haak, B., & Shrestha, S. (2017). The experiences of nontraditional students: A qualitative inquiry. *The Journal of Continuing Higher Education*, 65(3), 166-174.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rawford, N., & McKenzie, L. (2023). Localised learning: mobilising belonging among mature-aged students in low socio-economic status regional and remote areas. *Higher Education*, 85(5), 1021-1040.
- Daland, H. D., & Hidle, K. M. W. (2016). Meeting different expectations: An approach to the different library users' needs. In *New roles for research librarians: Meeting the expectations for research support* (pp. 35-46). Chandos Publishing.
- Gilardi, S., & Guglielmetti, C. (2011). University life of non-traditional students: Engagement styles and impact on attri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2(1), 33-53.
- Grund, J., Singer-Brodowski, M., & Büssing, A. G. (2024). Emotions and transformative learning for sustainability: A systematic review. *Sustainability Science*, 19(1), 307-324.
- Kitchenham, A. (2008). The evolution of John Mezirow'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6(2), 104-123.
- Knowles, M. S. (197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dragogy versus pedagogy*. Cambridge Book Company.
- Knowles, M. (2013). Andragogy: An emerging technology for adult learning. In R. Edwards, A. Hanson, & P. Raggatt (Eds.), *Boundaries of adult learning* (pp. 82-98). Routledge.
- Merriam, S. B. (2018). Adult learning theory: Evolution and future directions. In K. Illeris (Ed.),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Learning theorists in their own words* (2nd ed., pp. 83-96). Routledge.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 Mezirow, J. (2003). Transformative learning as discourse.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1(1), 58-63.
- Rovai, A. P. (2003). In search of higher persistence rates in distance education online program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6(1), 1-16.
- Sandler, M. E. (2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ceived stress, and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persistence: A structural model of finances, attitudes,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5), 537-580.
-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Wlodkowski, R. J., & Ginsberg, M. B. (2017).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all adults. John Wiley & Sons.

최지현(제1저자): 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내 HRD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융합인재 양성, 경력개발, 성인학습 등임. hrd-ace@korea.ac.kr

서승호(교신저자): 현재 세한대학교 스포츠융합복지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업무몰입, 개인-조직 적합성, 성인학습, 혁신행동임. shseo@sehan.ac.kr

논문접수일: 2026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2026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 2026년 8월 31일

ABSTRACT

Proposing a Tailored Academic Learning Model for Adult Learners at a Region-Centered University: A Case Study of S University*

Jeehyun Choi** (Korea University), Seungho Seo*** (Seha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tailored academic learning model for adult learner-dedicated programs at a region-centered university. Relevant literature on adult learning theories and prior research was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adult learners (mean age = 55.2 years) purposively sampled from S University in Jeonnam Province, South Korea. Semi-structured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o identify key theme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factors that strengthen adult learners' academic persistence include intrinsic growth motivation, perceived usefulness of learning,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interactive learning, and learning convenience; (b) factors that weaken academic persistence include practical constraints, traditional instructional methods, lack of learning management, limited learning opportunities,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outdated learning environments; and (c) the AL-EEMI model was developed as a tailored academic learning model for adult learners at a region-centered university. The model emphasizes flexibility in institutional systems and environments (Environment), active learning engagement (Engagement), intrinsic motivation (Motivation), and implementable learning design (Implementation). These finding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region-centered universities in connection with lifelong education policies.

[Keywords] Region-centered university, Adult learners, Adult-friendly academic learning model, AL-EEMI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26 Academic Research Fund of Sehan University.

** First author, Korea University, hrd-ace@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Sehan University, shseo@sehan.ac.kr